

군산시, '생활SOC 3개년 사업' 선제 대응

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등 정부 공모사업 발굴 지원 추진단 실무회의 개최 5월 수요조사 등 추진방향 설정

군산시가 정부 생활SOC 3개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정부가 연내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주거지원주택이다.

이에 추진 담당 부서 계장 30여명이 참석한 생활SOC추진단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정부 3개년 계획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시는 최근 이뤄진 실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44개의 생활SOC 시설에 대해 5월 중 부서별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 또는 국·공유지 활용 복합화 대상 사업발굴과 시설 신축 시 소요되는 운영비 등 가용 예산에 대한 실무적 논의도 이뤄졌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주거지 주차장



군산시 공무원들이 정부 생활SOC 사업 공모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단 실무회의를 가졌다. <군산시 제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생활SOC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안 암태도 '에로스 서각 박물관' 인기

천사대교 개통 효과...하루 방문객 1만2000명

신안군 암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한 천사대교 개통 후 자은, 암태, 안좌, 팔금도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암태도의 '에로스 서각 박물관' <사진>이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천사대교를 건너 암태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박물관은 천사대교 개통 전 방문객이 하루 300여명이었지만, 개통 이후 하루 최고 1만2000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35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암태 에로스 서각 박물관은 서각 예술 작품 전시와 독특하고 생동감 있는 문예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신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준다.

서각이란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기타 재료에 새겨 넣은 것으로 서체, 도법, 채법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 조각법

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며 에로스 와 결합한 예술의 세계를 선보인다.

에로스 서각 박물관은 2014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9241㎡, 건축면적 1840㎡ 규모로 건립됐다. 서각존, 사랑존, 작가존, 이색성체험방 등의 테마별로 목공예 500여점이 전시됐다.

별관에는 드래곤갤러리도 조성됐다.

폐교를 이용해 만든 서각 박물관은 서각존, 사랑존, 작가존, 이색성문화관, 용관 등 테마별 목공예가 500여 점 전시된 곳으로 모두 정배군 관장의 작품이다.

이 곳에서는 서각 예술작품, 용조각, 성인들만 입장이 가능한 이색성문화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개인 3000원, 20인 이상 단체 2000원이다. 신안군민과 65세 이상은 무료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고창군, 쌀 고품질 전략 마련 '생산기술 교육 토론회'

고창군이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고품질 전략 마련을 위한 '생산기술 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벼 육종전문가와 친환경 쌀 생산 단지 능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 토론회에선 벼 육종전문가인 김보경 국립식량과학원 박사가 지역 적합 품종 특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강의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맛과 영양, 원료로서의 쌀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의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쌀 브랜드화를 시작으로 농업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등 어린이날 다양한 행사 준비

순창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달 5일 일몰공원 광장과 공연장에서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몰공원 공연장에서는 제3회 평화가족동요 부르기 대회, 인형극(토끼 뱅튀기), 어린이 댄스, 합기도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광장에서는 비누방울 놀이

와 물풍장, 에어바운스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환경 실천 운동을 위해 첫 선을 보이는 깨끗한 순창 만들기(장바구니 나눔), 노 플라스틱 나만의 컵 만들기, 쪽물 염색 체험 부스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남원시, '실익 없는' 압류차량 풀어준다

심의위, 차량 연한 등 고려 해제...경제활동 기회 제공

남원시가 실제 운행하지 않는 등 행정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차량의 압류를 대거 해제한다.

29일 남원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압류차량 436대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류해제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

대상은 차량 연한과 자동차검사 이행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다.

차량 압류 건수만 1090건, 지방세 체납액(결손액 포함)으로 따지면 3억9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거쳐 최종 압류를 해제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과 부실채권 정리로 체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일몰제 적용 도심 공원 7곳 민간조성사업 지정

익산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심 7개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전체의 30% 이하 면적에 아파트를 비롯한 수익시설을 만들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다.

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1·2지구, 배산, 북일 등 7곳이 대상이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할 곳들이다.

시는 먼저 소라공원을 '공공지원 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한국도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맡기로 했다.

LH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일부 용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르면 연말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개 공원으로 차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공원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민간공원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광양시, 지역 공동체 기반 관광사업체 창업 육성

관광두레 신규지역 지정 관련 사업단과 MOU 체결

올해 관광두레 신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를 창업, 육성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최근 서울 티마크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한 2019년 관광두레 착수대회 '두레짜기'에 참석해 2019년 관광두레 추진방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광양시와 관광두레 신규지역 지자체 7곳이 간담회를 갖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과 주민사업체 육성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식음, 기념품 등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사업이다.

광양시는 올해 처음 관광두레사업 대

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관광두레 PD로 선정된 김수진씨가 관광두레를 총괄하며, 주민사업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받아 3년간 연차별로 기본사업을 추진한다.

3개년 사업이 끝난 후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자립 경영의 모범사례 지역으로 선정되면 경영다각화와 수익확대, 관광두레 네트워크 지속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아 2년간 추가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차 연도에는 지역자원과 관광객 니즈를 직접 조사해 지역관광 현안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구축해 사업가능성을 확보하고 관광두레살롱을 통해 사업을 공유한다.

또 관광사업체 5-7개를 공식 모집하고 워크숍, 유사 성공사례 견학, 멘토링, 공유회 및 발표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